

학교 밀집도 '3분의 2' 유지 권고

전북교육청, 학교별 개학일부터 9월11일까지 등교인원 제한 권장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2학기 방역 체계 점검을 위해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간 운영을 권장했다. 기간은 유·초·중·고 학교별 개학일부터 9월11일까지다.

단,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밀집도 최소화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별 밀집도 전교생 기준 2/3 유지, ▲초등 1~2학년은 기초학력보장 등을 위해 대면 등교 권장 ▲중, 고3 학생들은 진학 및 입시를 고려해 가급적 등교 권장, ▲특수학교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80명 이하 학교(병설유치원 170

개교 초 198개교, 중 88개교, 고 17개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밀집도 조차에서 제외하나 학교의 여건(전국단위 모집 전교생 기숙사 생활 등)에 따라 적용 기간 동안 등교 방안 결정 가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상담 교육 소의계층 등을 위해 대면·등교하는 경우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한편 9월 14일 이후의 등교 방안은 이미 안내된 공문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시에는 별도 공문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과대학교는 전체 학생 수 기준 2/3

등교 권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과대학교 기준 및 추가 지침도 마련했다.

과대학교는 전체 학생 수 기준 2/3(학년 또는 학급 단위)이하 등교 권고로서, ▲과대학교는 (초등)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 (중등) 900명 이상 ▲과밀학급(초등: 학급당 평균 25명 이상 중등: 학급당 평균 30명 이상)의 경우 학급 내 학생 활동 공간 최대 확보 및 예방 수칙 준수 철저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 개학 후 첫 2주간 집중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간 운영을 권장했다.

도내 중고생 5명중 1명 "아침식사 전혀 안해요"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5명중 1명은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고등학생 10명중 4~5명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전북교육정책' '오늘'을 통해 공개했다.

정책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에 장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면역 및 위생 관리 등 건강생활상태를 알아보고자 전북지역 중학생 1,199명, 고등학생 1,257명 등 총 2,4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학생의 22.5% 고등학생의 24.4%가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주일에 5번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중학생 46.5%, 고등학생 45.9%로 나타났다.

탄산·가당음료 섭취를 묻는 질문에는 '일주일에 3~4번'이라는 응답률이 중학생 35.7%, 고등학생 33.8%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2번'이라는 응답률은 각각 32.7% 33.4%로 집계됐다. 반면 주 5회 이상 마신다는 비율도 중학생 25.1% 고등학생 28.6%로 적지 않

았다. 패스트푸드 섭취 역시 일주일에 1~2회 먹는다는 응답률이 중학생 56.7%, 고등학생 55.0%로 절반을 웃돌았다.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등학생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 38.6% 고등학생 46.0%가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것.

수면시간에 대해서도 중학생 38.8% 고등학생 55.3%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다수의 학생들이 수면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이순아 연구위원은 탄산이나 가당음료 및 패스트푸드 섭취를 자제할 수 있는 교육과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등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수면 불충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수면 관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 '오늘' 보고서 전문은 전북교육연구원(교육정책연구·자료미팅·교육동향분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3 초청 모의면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고3 학생들을 초청, 모의면접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3 수험생 76명과 전북대 교수위촉임학사 정관 및 전임입학사정관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 행사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대 육성사업 'JNU 진로진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북대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서 고교·대학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평가로 학생을 선발한다.

면접평가는 전임교수, 교수위촉임학사정관, 전임입학사정관이 3인 1조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학생 1인당 15분 내외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모의면접은 실제 면접평가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면접 결과를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줌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홍철운 입학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위생 및 방역관리를 철저히 했다"며 "이번 모의면접을 통해 고3 수험생이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는 전북지역 고3 수험생 76명과 전북대 교수위촉임학사정관 및 전임입학사정관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고교생 초청 모의면접' 행사를 가졌다.

전주대-전주시, 생활환경 문제 개선 '맞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전주시와 온고를 리빙랩(Living Lab),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는 대학본관 접견실에서 전주시와 생활환경 문제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리빙랩(Living Lab) 방식 도입을 통해 지역 생활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쓰레기 문제 관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을 중심으로 산학관연이 참여하여야는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다. 온고를 리빙랩도 지역주민과 전주시 복지환경국(국장 민선식), (주)에바(리플(박철 대표),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 전주대 농생명융합기술원(원장 최규홍) 및 참여학과 교수 학생이 한데 모여 도로변과 골목에 무단으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문제와 그로 인한 악취, 도시미관 손상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사전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덕진구 5곳(전북대 인근, 석소여린이공원 등), 완산구 5곳

(산너머공원, 상산고 뒷길, 서원초 등)을 문제 해결지로 예비 선정했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통해 해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생활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주승 LINC+사업단장은 "리빙랩의 사례를 보면 기술보다 문화의 가치가 더 중요한데,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전주시, 기업과 대학이 긴밀한 소통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오늘 개소

전북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이하 JB DSi 지원센터)가 2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JB DSi 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조성됐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공익,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이하 DSi)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북, 서울 강원 전국 세 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JB DSi 센터는 전주대를 중심으로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해 운영하며, 지역의 인재를 디지털 기술과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DSi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집중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 기관, 기업 등에 DSi 솔루션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박형용 교수는 "DSi 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의 지역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핵심 사업이다"며 "JB DSi 센터는 올해 DSi 전문 인력 20명을 양성할 예정이며, 전북 지역 내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데 힘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